

불기 2567년

봉축 법요식

2023년 5월 27일(토) 10:00~12:30 초기불전연구원



"나는 세상에서 최고요
나는 세상에서 으뜸이요
나는 세상에서 지존이다.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
다시 더 태어남[재生]은 없다."

니가 나니까야 (D14)



식 순

진행: 아누따라 김병민

1. 타종식(10시)

2. 우리말 삼귀의

3. 삼귀의와 오계 수지

4. 경전 독송 자애 경, 큰 행복 경 외

5. 현공 및 축원

6. 인사말 원장 대림 스님

7. 봉축사 2IC 불교포럼 이사장 황경환

제주 동호회 회장 샷짜와나 한창현

8. 청법가 및 입장

9. 봉축 법문 지도 법사 각묵 스님

10. 봉축 발원문 연합회장 봇디물라 이종수

II. 특별공연 대금 연주: 까라우니까 대금연주단

축가: 보리원 대중

지휘: 소라짜 박지민

12. 공지사항

13. 사홍서원

삼귀의와 오계 수지

[스님 선창 후 대중 따라함]

아함 반떼 | 띠사라네나 사하 | 빤짜실-랑 | 담망 야-짜-미 |

Aham bhante, tisaranena saha pañcasilam dhammam yācāmi

존경하는 스님이시여, 저는 삼귀의와 오계를 받고자 청하옵니다.

아눅가항 까뜨와- | 실-랑 데타 | 메 반떼 ||

anuggaham katvā sīlam detha me bhante 자비를 베푸셔서 계를 설해주소서.

두띠암빠 | 아함 반떼 | 띠사라네나 사하 | 빤짜실-랑 | 담망 야-짜-미 |

Dutiyam pi aham bhante, tisaranena saha pañcasilam dhammam yācāmi

두 번째로, 존경하는 스님이시여, 저는 삼귀의와 오계를 받고자 청하옵니다.

아눅가항 까뜨와- | 실-랑 데타 | 메 반떼 ||

anuggaham katvā sīlam detha me bhante 자비를 베푸셔서 계를 설해주소서.

띠띠암빠 | 아함 반떼 | 띠사라네나 사하 | 빤짜실-랑 | 담망 야-짜-미 |

Tatiyam pi aham bhante, tisaranena saha pañcasilam dhammam yācāmi

세 번째로, 존경하는 스님이시여, 저는 삼귀의와 오계를 받고자 청하옵니다.

아눅가항 까뜨와- | 실-랑 데타 | 메 반떼 ||

anuggaham katvā sīlam detha me bhante 자비를 베푸셔서 계를 설해주소서.

[스님]

야마함 와다-미 땀 와데타 ||

Yamaham vadāmi tam vadetha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십시오.

[대중이 함께]

아-마 반떼 || Āma bhante 예, 존경하는 스님.

❖ 붓다 완다나(Buddha-vandanā,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스님이 선창 후 대중 따라함]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붓닷사(세 번)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그분 세존, 공양 올려 마땅한 분 바르게 깨달으신 분께 귀의합니다.

❖ 띠 사라나(Ti-sarana, 삼귀의)

[스님 선창 후 대중 따라함]

붓당 사라낭 갓차-미 | Buddham saraṇam gacchāmi,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담망 사라낭 갓차-미 | Dhammam saraṇam gacchāmi,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상강 사라낭 갓차-미 || Saṅgham saraṇam gacchāmi, 승가에 귀의합니다.

두띠암빠 붓당 사라낭 갓차-미 | Dutiyam pi Buddham saraṇam gacchāmi, 두 번째로 …

두띠암빠 담망 사라낭 갓차-미 | Dutiyam pi Dhammam saraṇam gacchāmi, 두 번째로 …

두띠암빠 상강 사라낭 갓차-미 || Dutiyam pi Saṅgham saraṇam gacchāmi, 두 번째로 …

띠띠암빠 붓당 사라낭 갓차-미 | Tatiyam pi Buddham saraṇam gacchāmi, 세 번째로 …
띠띠암빠 담망 사라낭 갓차-미 | Tatiyam pi Dhammam saraṇam gacchāmi, 세 번째로 …
띠띠암빠 상강 사라낭 갓차-미 | Tatiyam pi Saṅgham saraṇam gacchāmi, 세 번째로 …

[스님]

띠사라나 가마남 빠리뿐남 | Tisaranagamanam paripuṇṇam, 삼귀의를 마쳤습니다.

[대중이 함께]

아-마 반떼 | Āma bhante 예, 존경하는 스님.

❖ 뺨짜 식카빠다니(Pañcasikkhāpadāni, 오계, 다섯 가지 학습계목)

[스님 선창 후 대중 따라함]

① 빠-나-띠빠-따- 웨-라마니- 식카-빠당 사마-디야-미 |

Pāṇātipātā veramaṇī sikkhāpadam samādiyāmi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학습계목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②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식카-빠당 사마-디야-미 |

Adinnādānā veramaṇī sikkhāpadam samādiyāmi

주지 않는 것 가지는 것을 금하는 학습계목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③ 까-메수 밋차-짜-라- 웨-라마니- 식카-빠당 사마-디야-미 |

Kāmesu micchācārā veramaṇī sikkhāpadam samādiyāmi

삿된 음행을 금하는 학습계목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④ 무사-와-다- 웨-라마니- 식카-빠당 사마-디야-미 |

Musāvādā veramaṇī sikkhāpadam samādiyāmi

거짓말을 금하는 학습계목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⑤ 수라-메-라야 맷자 빠마-닷타-나- 웨-라마니- 식카-빠당 사마-디야-미 |

Surāmeraya majja pamādaṭṭhānā veramaṇī sikkhāpadam samādiyāmi

방일의 근본이 되는 여러 종류의 술을 금하는 학습계목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 빠리나-마(Pariṇāma, 회향)

[스님 선창 후 대중 따라함]

이당 메 뿐남 | 아-사악카야- 와향 호두 |

Idam me puuññam āsavakkhayā'vaham hotu 이러한 저의 공덕으로 모든 번뇌 사라지기를.

이당 메 실-랑 | 닙바-낫사 | 뺨짜요 | 호두 |

Idam me sīlam nibbānassa paccayo hotu 이러한 저의 계행으로 열반을 깨닫게 되기를.

[스님]

압빠마-데나 삼빠-데타 |

Appamādena sampādetha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여

막가삿짜 | 팔라삿짜 | 닙바-낫사 | 뺨짜요 | 호두 |

maggasacca phalasacca nibbānassa paccayo hotu 도와 과, 열반을 바르게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이 함께]

아-마 반떼 | Āma bhante 예, 존경하는 스님.

자애 경(Metta-sutta, Sn1:8)

도닦음에 능숙한 자, 고요한 경지를 체험하면서 이처럼 행할지라.
유능하고 정직하고 진솔하며 고운 말에 온화하고 겸손하네.

만족하고 공양하기 쉽고 일 없고 검소하며
감관은 고요하여 슬기롭고 거만 떨지 않고 신도 집착하지 않네.

현자가 나무랄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니
원컨대 모든 중생 즐겁고 안녕하여 부디 행복할지라.

약하거나 강하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치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통통하거나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모두 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중생 부디 행복할지라.

남을 속이지 않고, 어떤 곳에서 어떤 이라도 경멸하지 않으며
성냄과 적개심으로 남의 불행을 바라지 않네.

어머니가 하나 밖에 없는 친아들을 목숨으로 보호하듯
모든 중생들을 향해 한량없는 마음을 개발할지라.

온 세상 위, 아래, 옆으로 장애와 원한과 증오를 넘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개발할지라.

섰거나 걷거나 앉았거나 누웠거나 깨어있을 때는 언제나
이 자애의 마음챙김을 개발할지니, 이를 일러 거룩한 삶이라 하네.

계행을 지닌 자, 사견을 따르지 않고 바른 견을 구족하여
감각적 욕망에 집착을 버려 다시는 모태에 들지 않으리.

큰 행복 경(Mangalasutta, Sn2.4)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왓띠의 제따 숲에 있는 아나타 뻔디까 원림(급고독원)에 머무셨다. 그때 밤이 아주 깊어갈 즈음 어떤 천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 숲을 두루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왔다. 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서서 그 천신은 세존께 시로써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2. (천신) “많은 천신들과 사람들은 안녕을 바라면서 행복에 대해 생각합니다. 무엇이 으뜸가는 행복인지 말씀해주십시오.”
3. (세존) “어리석은 사람을 섬기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섬기며 예경할 만한 사람을 예경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4. 사부대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으며 자신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5.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계행을 철저히 지니고 고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6.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생업에 충실한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7. 베풀고 여법하게 행하며 친척들을 보호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8. 불선법을 피하고 여의며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선법들을 향해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9. 존경하고 겸손하며 만족할 줄 알고 은혜를 알며 시시각각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10. 인내하고 도반의 말에 순응하며 출가자를 만나고 때에 맞춰 법을 담론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11. 감각기능을 단속하고 청정법행을 닦으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12. 세상사에 부딪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고 티끌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13. 이러한 것을 실천하면 어떤 곳에서건 패배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안녕하리니 이것이 그들에게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보배 경(Ratana-sutta, Sn.2:1)

1. 여기 모인 모든 존재들, 땅에 있건, 하늘에 있건
그 모든 존재들이 다 기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나 여래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를!
2. 모든 천신들이여, 경청하기를!
밤낮으로 그대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인간들에게 자애를 베풀기를!
그들을 잊지 말고 보호해 주기를!
3. 이 세상 것이건 다른 세상 것이건 천상의 것이건
그 아무리 귀중한 보배라 할지라도 여래와 견줄만한 것은 없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부처님이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4. [도의] 삼매에 든 석가족의 성자는
번뇌 다함과 탐욕이 빛바램과 불사의 으뜸가는 법을 증득하였네.
그 법과 견줄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열반의] 법이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5. 최상인 부처님은 청정하고 즉시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를 찬탄하였네.
그 [아라한의] 삼매와 견줄만한 것은 없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법이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6. 선한 이들이 찬탄하는 네 쌍의 여덟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
그들은 선서의 제자들로 공양받을 만한 분들이라.
그들에게 올린 보시는 큰 결과를 가져오나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승가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7. 부처님의 교법에서 그들은 확고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오염원에서 벗어나
[아라한]과를 얻고 불사에 도달하여
두려움 없이 [과의 증득인] 적멸을 즐기나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승가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8. 땅속에 깊이 박힌 기둥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성스러운 진리를 깨뚫어 보는 선한 이 예류자들도
그와 같이 흔들림이 없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승가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9. [예류자들은] 잘 설해놓으신 성스러운 진리를
심오한 통찰지로 분명하게 보나니
[비록 천상의 왕이나 전륜성왕 등으로 태어나] 심히 방일하더라도
여덟 번째 태어남은 없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승가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10. 예류자는 [예류도의 증득인] 봄을 구족함과 동시에
유신견과 의심과 계금취의 세 가지 법을 완전히 버렸고
네 가지 악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여섯 가지 심한 악행을 범하지 않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승가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11. 그 [예류자들은] 몸이나 말이나 마음으로
어떤 악행을 짓더라도 그것을 숨길 수 없다네.
봄을 구족한 자는 악행을 숨길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승가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12. 여름철 첫 달에 무성한 숲이 가지마다 꽃을 피우듯이
최상의 이익인 열반을 얻게 하기 위해
거룩한 가르침을 설하셨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부처님이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13. 거룩하신 분, 거룩한 열반을 아시는 분, 거룩한 열반을 주시는 분,
거룩한 열반으로 인도하시는 분,
위없는 그분께서 거룩한 가르침을 설하셨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부처님이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14. 묵은 [업]은 다했고 새로운 것은 생겨나지 않으며
미래의 존재에 탐욕이 빛바래어
그 [아라한]들은 태어날 씨앗이 다했고
[더 이상] 자라기를 열망하지 않네.
등불이 꺼지듯 현자들은 적멸에 들었으니
이 으뜸가는 보배는 바로 승가라.
이러한 진실한 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15. 여기 모인 존재들, 땅에 있건, 하늘에 있건 모두가
천신들과 사람들이 예경하는 여래이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16. 여기 모인 존재들, 땅에 있건, 하늘에 있건 모두가
천신들과 사람들이 예경하는 여래이신
법에 예경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17. 여기 모인 존재들, 땅에 있건, 하늘에 있건 모두가
천신들과 사람들이 예경하는 여래이신
승가에 예경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버림 경(S36:3, pahāna-sutta)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왓티에서 제따 숲의 아나타쁘디
까 원림(급고독원)에 머무셨다.

2.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3. “비구들이여,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느낌이 있다.”

4. “비구들이여, 즐거움을 느낄 때 탐욕의 잠재성향을 버려야 한다. 괴로움을
느낄 때 적의의 잠재성향을 버려야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경우,
무명의 잠재성향을 버려야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즐거움을 느낄 때 탐욕의 잠재성향을 버리고 괴로움을 느낄
때 적의의 잠재성향을 버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경우 무명의 잠재
성향을 버리면, 이를 두고 ‘비구의 잠재성향은 제거되었다. 그는 올바로 보는 사
람이다. 그는 갈애를 잘라버렸다. 족쇄를 풀어버렸다. 자만을 관통하여 마침내 괴
로움을 끝내어버렸다.’라고 한다.”

5.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느낌을 깨뚫어 알지 못한다면

그는 탐욕에 마음이 쓸려 해탈을 얻지 못하리.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느낌을 깨뚫어 알지 못한다면
그는 적의에 마음이 쓸려 해탈을 얻지 못하리.

그리고 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광대한 통찰지를 가진 자 그것을 평화롭다 가르치지만
그것 또한 맛들여 매달린다면
결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

그러나 비구가 열심이어서
분명히 알아차리는 공부 소홀히 하지 않으면
그 현자는 모든 느낌을 철저하게 알리로다.

그 지혜의 달인은 느낌을 철저하게 알아
바로 이생에서 번뇌가 멀진할 것이며
몸이 무너질 때엔 법의 길에 확고하리니
어떤 헤아림으로도 그를 가늠할 길이 없으리.”

배우지 못한 자 경2(assutavā-sutta, S12:62)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왓티에서 제따 숲의 아나타쁘디까 원림(급고독원)에 머무셨다.
2.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3.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도 네 가지 근본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에 대해서 염오하고 탐욕이 빛바래고 벗어나려 할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네 가지 근본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은 활기찬 때도 있고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밭을 때도 있고 내려놓을 때도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우지 못한 범부도 여기에 대해서 염오하고 탐욕이 빛바래고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
4. “비구들이여, 그러나 배우지 못한 범부는 마음이라고도 마노라고도 알음알이라 고도 부르는 이것에 대해서 염오할 수 없고 탐욕이 빛바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움켜쥐고 내 것으로 삼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여기에 대해서 염오할 수 없고 탐욕이 빛바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

5.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차라리 네 가지 근본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을 자아라고 할지언정 마음을 자아라고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네 가지 근본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은 일년도 머물고 2년도 머물고 3년도 머물고 4년도 머물고 5년도 머물고 10년도 머물고 20년도 머물고 30년도 머물고 40년도 머물고 50년도 머물고 100년도 머물고 그 이상도 머물지만 마음이라고도 마노라고도 알음알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낮이건 밤이건 생길 때 다르고 소멸할 때 다르기 때문이다.”

6. “비구들이여, 이 경우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연기를 잘 마음에 잡도록 한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라고.

비구들이여,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접촉을 반연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러나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접촉이 소멸하면 그것을 반연하여 생긴 즐거운 느낌도 소멸하고 고요해진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을 일으킬 감각접촉을 반연하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러나 괴로움을 일으킬 감각접촉이 소멸하면 그것을 반연하여 생긴 괴로운 느낌도 소멸하고 고요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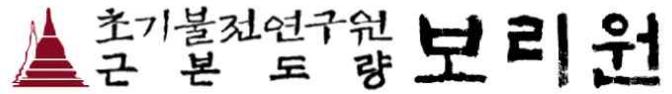
비구들이여, 괴로움도 즐거움도 일으키지 않을 감각접촉을 반연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 그러나 괴로움도 즐거움도 일으키지 않을 감각접촉이 소멸하면 그것을 반연하여 생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소멸하고 고요해진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두 개의 나무토막을 맞대어 비비고 마찰하면 열이 생기고 불이 붙지만 이러한 두 개의 나무토막을 따로 떼어서 놓아두면 거기서 생긴 열도 깨지고 가라앉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접촉을 반연하여 … 비구들이여, 괴로움을 일으킬 감각접촉을 반연하여 … 비구들이여, 괴로움도 즐거움도 일으키지 않을 감각접촉을 반연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 그러나 괴로움도 즐거움도 일으키지 않을 감각접촉이 소멸하면 그것을 반연하여 생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소멸하고 고요해진다.”

7.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심리현상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알음알이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바래므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梵行)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으며,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깨뚫어 안다.



51005. 경남 김해시 관동로 27번길 5-79
055)321-8579 cafe.daum.net/chobul, tipitaka.or.kr